"경제 살릴 후보라야" vs "불안한 후보 안돼"

한나라당이 26일 오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두번째 경선후보 합동연설회는 당의 '전략적 텃밭'임을 과시하듯 1만여 명의 대의원과 당원들이 운집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제주 연설회에서 벌어진 무질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지자들간 몸싸움과 언쟁 등 마찰이 빚어지긴 했지만 대체로 주최측의 엄격한 통제 속에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당 경선관리위원회가 광주연설회를 연기하는 등 강경한 경고메시지를 보낸데다 전날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때문으로 보였다. 각 후보들도 지역공약과 국정비전을 제시했을 뿐 공방은 자제했다.

한나라당 부산 연설회…아프간 여파 李-朴 공방 자제

주최측 엄격한 통제 불구 일부 지지자들 충돌 '눈살'

◇**엄격한 통제**=이날 행사에는 진행요원들이 대거 동원돼 입장 때부터 삼엄한 통제가 이뤄졌다. 지난 제주 연설회에서 벌어진 '자리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연단 맞은편 관중석은 좌측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의원, 우측에 박근혜 전 대표와 원희룡 의원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잡도록 배정됐으며 양측을 가르는 통로에는 질서유지 요원 20여 명이 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행사장 앞쪽에 마련된 스크린에는 ▲꽹과리·북·호루라기·피켓·깃발 등 '열기고조 기구' 금지 ▲동일 색상 및 다자인 의상 착용 금지 ▲단체 율동 및 노래 금지 ▲고함·난동·몸싸움 금지 등의 경고문이 게재됐다.

◇**일부 지지자 충돌 '눈살'**=하지만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충돌사태는 이날도 어김없이 등장,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을 구분하는 통로 옆에 자리를 잡은 일부 지지자들은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몇몇은 서로 발길질을 하며 싸움을 벌여 안전요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대조적인 두 후보 연설** = 이날 연설회에서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연설 내용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 전 시장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배제한 채 자신의 성장 과정과 성공스토리를 강조한 반면, 박 전 대표는 "불안한 후보, 약한 후보로는 악착같은 여당을 이길 수 없다"며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서슬 퍼런' 공세를 펼쳤다.

이 전 시장은 연설 대부분을 성장 과정과 사업가로서의 성공 등을 소개하면서 "부산은 60~70년대는 산업화의 중심이었다"면서 "부산시민들의 '부산경제 형편 없심더', '부산경제 살려주이소'라는 표정을 보면서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부산과의 인연을 풀어놓았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연설의 70% 가량을 이 전 시장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어떤 후보를 뽑느냐에 따라 정권교체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운을 뗀 뒤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된다. 후보가 된 다음 문제가 터지면 정권교체는 물 건너가고 만다"면서 "약한 후보로도 안 된다. 사자는 새끼를 절벽에 던져서 살아남는 것만 키운다는데 약속한 경선 규칙을 바꾸고 연설회 일정을 회피하고 TV토론을 못하겠다는 후보로 어떻게 악착같은 후보를 이기겠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 26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후보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뒤로 걸어가고 있다. 이 전 시장 옆은 한때 '박근혜의 입'으로 불리었다가 최근 이 전 시장 지지를 선언한 전여옥 의원. /연합뉴스

檢, 이상은씨 출석 서면요구

〈이명박씨 맏형〉

도곡동 땅 등 부동산 의혹

박희태 "곧 검찰에 출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 후보 맏형인 이상은씨 거주지로 공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씨는 서울 도곡동 땅 등 부동산의 차명소유 의혹이나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주상복합건물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을 좌우한 주요 참고인으로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가족 등을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인 이씨의 검찰 출두를 설득해왔으나 출석을 공식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불응 때 소환장 발송 등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계좌와 이미 본인 허락을 받아 추적 중인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계좌 등을 분석해 이들이 서울 도곡동 땅을 사는데 들어간 매입자금과 포스코개발에 되팔아 생긴 매도자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챙긴 막대한 이익 등의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포항제철 전 회장인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이 감사원 조사 등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씨 소유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하면서 보고자로 지목했던 포스코 김모 전 상무를 25일 불러 사실관계를 따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 후보 캠프의 박희태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캠프에서 일본에 체류 중인 이씨 측에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상은씨가 오늘 내일쯤 검찰에 출두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시장과 도곡동 땅은 아무 관계가 없고 이상은씨는 몸이 안 좋아서 일본에 간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회장 사퇴·李캠프 들어가라"

범여권, 조석래 발언 맹공…검찰 고발도 검토

"차기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돼야 한다", "다 들추면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의 발언에 대해 범여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사돈인 조 회장이 경제계 수장의 직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이 후보 편들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특히 열린우리당은 조 회장의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사돈 편드는 것이야 이해되지만 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역시 툭하면 설화에 휘말리는 이명박 후보의 사돈 답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경제인의 명예를 위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직을 사퇴하고 이명박 후보 캠프로 들어가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은 엄격한 선거법이 적용되는 기간"이라며 "조 회장의 발언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민주당 장경수 대변인은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전경련 회장으로서, 또 특정후보와 인척관계를 맺고 있는 인사가 특정후보에 유리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랍 역풍 맞을라… '한나라 연설회' 고민

사태 악화시 일정 축소 배제 못해

한나라당은 26일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가 최초 희생자 발생으로 심상치않게 전개되자 내달 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대선 경선후보 합동연설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한국 인질 1명의 살해 소식이 외신을 통해 긴급 타전되면서부터 당 지도부는 전화를 통해 부산 합동연설회를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후문이다.

자칫 후보 간 정치 공방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충격을 받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제주연설회에서의 양대 주자 측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로 연설회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재개된다는 점과 일정을 급작스레 연기 또는 취소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일단 이날 부산연설회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다만 강재섭 대표의 지시에 따라 식전 축하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대신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당 공식 차원에서 표하는 한편, 피켓 반입과 유세 도중 박수 등을 금지하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른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만일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남은 연설회 일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제금융서 잔뼈 굵은 '미스터 원(₩)'

신임 금감위장 김 용 덕 씨

'미스터 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금융 전문가. 행정고시 15회로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를 거치면서 주로 외환정책 등 국제금융 업무를 맡았다.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업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힘쓰는 등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관세청장에 발탁됐다.

2005년 5월부터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일하면서 송파신도신 건설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참여했으며 작년 11월부터는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서 금융과 부동산 문제를 전담했다.

관세청장과 건교부 차관 재임 때 혁신 매뉴얼을 만드는 등 조직 혁신을 강조했으며 음악과 연극관람, 등산을 즐긴다.

김광림 전 재경부 차관의 손위 동서이며 부인 김희준씨 사이에 1남2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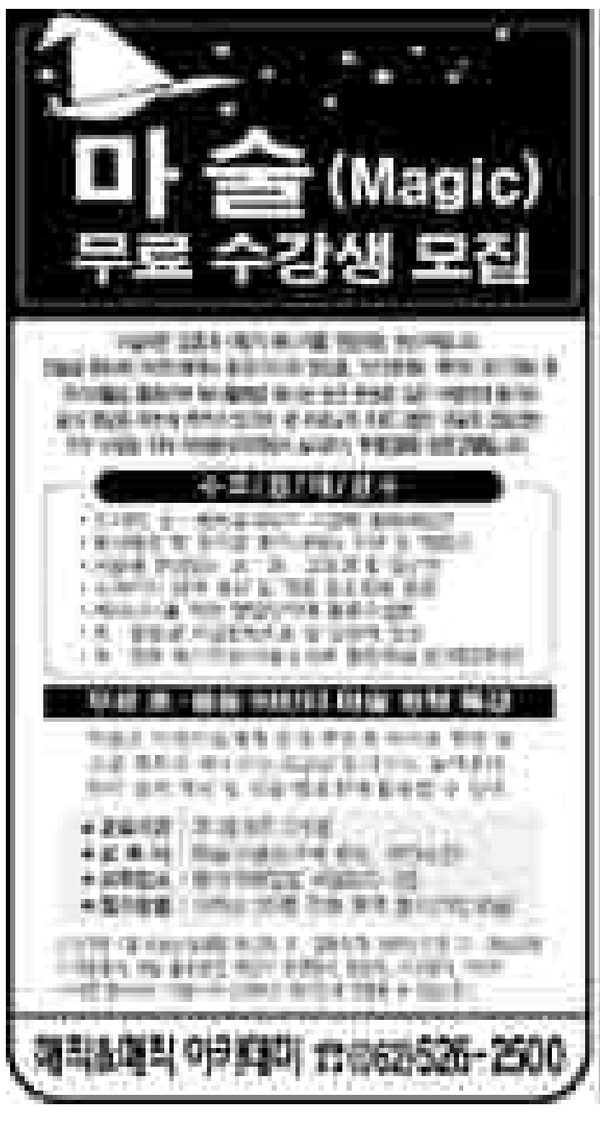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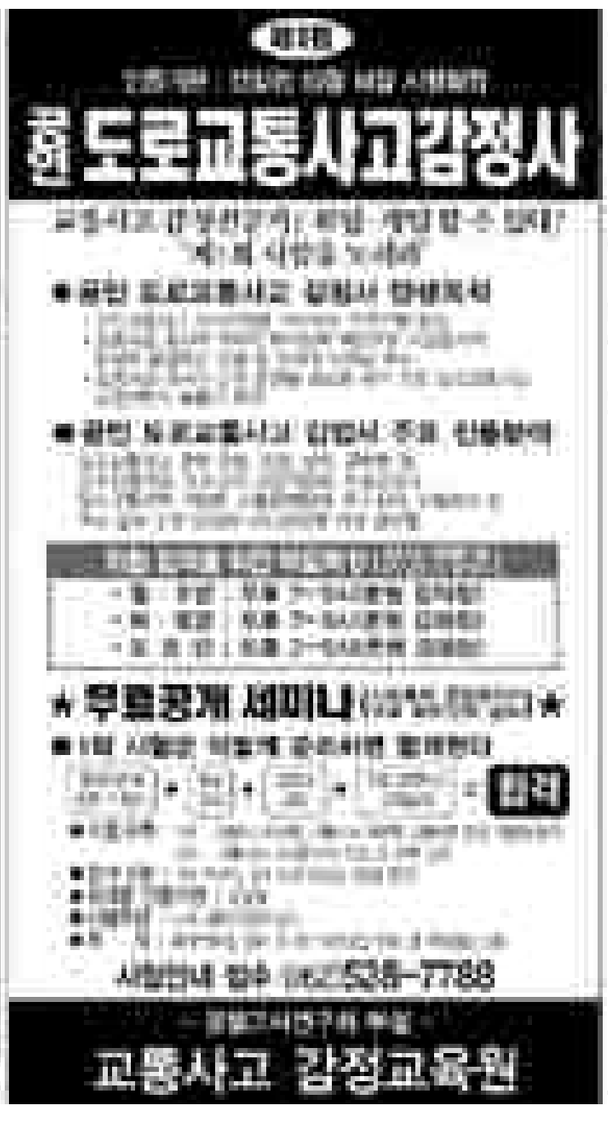
▲전북 정읍(57) ▲용산고, 고려대 경영학과, 필리핀 아테네오대 MBA ▲대통령 조세금융 및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관세청장 ▲건교부 차관

"특정인 관련 발언 아니다"

전경련, 조회장 발언 해명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석래 회장의 강연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명서를 통해 조 회장이 25일 제주 CEO 포럼에서 행한 '미래 한국비전과 차기 지도자에게 드리는 제언' 강연 내용 중 "일부 표현이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강연은 차기 지도자에게 경제를 더욱 잘 챙기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경제인들의 일반적인 바람을 피력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특정 정치인과 관련지어 발언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